

# 정읍 구절초공원, 사계절 관광지로 변신

시, 2021년까지 60억 투입  
물결·들꽃 등 테마정원 조성  
옥정호·술숲 등 관광 명소화



구절초 꽃축제가 열리는 구절초테마공원은 빼어난 자연경관과 함께 가을 꽃들이 만발해 장관을 연출한다. <정읍시 제공>

정읍 구절초 꽃축제의 주무대인 구절초테마공원이 구절초 지방정원으로 거듭난다. 30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구절초공원의 계절적 한계를 극복하고 사계절 명품 휴양공간이자 정읍 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계절 테마정원으로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진행된 산림청 국비 공모사업에 정읍시가 선정되면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전국적으로는 정읍시를 비롯해 11개 지자체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2021년까지 60억원을 투입해 구절초테마공원 내 국공유지(29만6000여㎡)에 공간별로 5개의 테마정원(구절초정원, 물결정원, 들꽃정원, 참여정원, 사계절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구절초정원은 현재의 모습을 유지한 가운데 전망대와 쉼터 등의 편의 시설을 설치해 새로 단장한다.

물결공원은 구절초정원과 연결한 섬진강 주변의 습지와 폭포 등을 활용한 습지 생태 체험 공간이며, 들꽃정원에서는 다양한 야생화와 들꽃을 즐길 수 있다.

인근 부치봉 일대에 조성되는 사계절정원은 삼립육장, 산책로, 4계절 꽃동산으로 구성되며 참여정원에서는 구절초를 이용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고 농특산물도 싸게 살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가을철에만 주로 관광객이 몰리는 한계를 극복하고 연중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절초 테마공원은 만개한 구절초가 옥

정호의 물안개, 술숲과 어우러지면서 한 폭의 수채화를 만들어내는 곳이다.

한편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정읍 구절초 꽃축제는 오는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군산시, 농업농촌 식품산업 348개 사업 6915억 투입

2023년까지...발전계획 수립

군산시는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농업이 나아갈 방향과 사업에 대한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농업관련 민선7기 농정철학인 공유·순환, 사람을 바탕으로 '따뜻한 자립 농정,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라는 8대 과제와 10대 전략을 세웠다.

사업은 총 348개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우선순위를 확정해 농업분야

예산의 집행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예산은 6915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시는 발전계획이 이행될 경우 원예소득은 전체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로 늘어나고, 친환경 농업은 1000ha

로 증가하면서 농업 소득이 5%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병래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중장기 계획은 군산농업을 분석하고 재해석한 뒤 민관이 뜻을 모아 마련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은 높다"면서 지역 농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군산=박근석 기자 nogusu@

# 고창군, 지역 농산품 판로 개척 박차

GS리테일 매장 활용 유통 등 상생협력 협약

고창군이 지역 농산품의 판로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 29일 GS리테일과 지역 농산품 유통과 유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등 농산물 가격·수급 안정을 위한 온·오프라인 입점, 농산물 판로 지원, 로컬푸드 확대를 위한 GS리테일 매장 활용 마케팅 지원 등에 나서게 된다.

또 지역농산품을 활용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GS리테일은 지난해 협력을 통해 쌀, 잡곡, 고구마 등 47억원에 상당하는 지역

농산품을 매입했다.

올해는 업무협약으로 수박, 메론 등의 농산물 확대로 80억원 이상의 매입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지역의 청정 이미지 향상과 함께 농산품의 판로확대, 농가소득 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GS리테일은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품을 고객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고객의 니즈에 맞는 차별화된 가치 제공과 고객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한반도 첫 수도 고



장에서 생산된 우수한 지역 특산물 유통이 되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 순창군,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호응

귀농·귀촌·예술가 등 주거·문화공간 무상 임대

순창군이 올 초부터 본격 추진한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프로젝트'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30일 순창군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새롭게 단장해 인구감소에 따른 빈집 증가로 주거환경 악화, 농촌 마을 과소화 등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도와·시·군 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과 주거 취약계층 등에는 주거공간으로, 지역예술가에게는 문화공간으로 5년 동안 무상 임대한다.

군은 사업에 대해 좋은 반응이 이어짐에 따라 올해부터 빈집 재생을 위한 보수비용 지원확대와 임대·활용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소유자에게는 동당 지원금액을 1200

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고, 임차인에게는 기존 주변 시세 반값 임대방식에서 올해부터 무상임대료 전환해 5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또 단순 주거형에서 지역 내 문화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예술가들이 비영리 운영조건이면 문화공간으로도 무상 임대가 가능해졌다.

군은 올해 총 2억2000만원을 들여 11동을 지원하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선정됐으며, 6동은 이미 귀농·귀촌인 8가구에 15명이 입주했다. 나머지는 10월 말까지 모두 입주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말까지 19동을 지원해 21가구 43명이 입주했으며, 올해 말까지는 추가로 5가구 10명에게 새 보급자리가 제공된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



# 남원시, 정부양곡보관창고 시설현대화 추진

남원시가 정부양곡보관창고의 시설현대화에 앞장서고 있다.

남원시는 노후화된 정부양곡보관창고를 폐지하고 시설현대화를 추진하는 등 당초 65개 창고를 55개로 정비하는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

시는 노후화된 보관창고 폐지와 시설현대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해 저온저장고 4개소 1960㎡, 특급 1개소 1587㎡, 1급 6개소 2936㎡ 등 총 11개소 6483㎡를

신규로 시설하는 등 고품질쌀 품위향상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했다.

시는 올해 신규로 현대화시설인 저온저장고 1개소 486㎡를 신규도급계약 체결해 나가는 등 지속적으로 정부양곡보관창고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창고 내에 방충망을 설치하고 환기구와 창고주변 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시설현대화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 익산시, '치매안심마을' 운영...주민 삶의 질 향상

익산시가 주민의 정신건강 확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송학동 지안리즈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주민밀착형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한다.

시는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이 아파트 주민 1678명 중 60세 이상 1033명을 대상으로 치매선별 검사와 진단검사를 펼친다.

검사서치 치매환자로 진단을 받게 되

면 협력병원과 연계해 조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치매진료비 사업 대상으로 선정,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환자의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족참여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 덕남동, 임야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덕남동, 992㎡(300p),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될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4500만원(3.3㎡당 15만원)
- 문의. 010-6834-7400

